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7
염려 없이 관용이 가득한 생활을 함

성경: 빌 4:5-7, 롬 8:28, 계 2:16, 3:11, 22:7, 12, 20

I.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빌 4:5.

- A. 바울은 관용과 염려 없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표현하는 첫 두 방향으로 여긴다.
- B.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관용이 있고 염려가 없는 것이다.
- C.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 D.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잠잠한 생활이다. 혼란한 생활은 사탄을 사는 생활이다.
- E.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 1.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관용은 또한 절제와 인내와 중용과 친절과 온화함과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심과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과 겸손과 주님을 앙망함과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미덕을 포함한다.
 - 3. 우리가 관용을 베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 4.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 5.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 의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대하 1:10, 비교 고후 6:1.
 - 6. 관용은 생명의 성숙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자족을 요구한다.
 - 7.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8.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 9.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모두에서 우리는 관용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 10.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 빌 1:21 상.
 - 11. 우리의 관용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여야 한다.
 - 12.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한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 13. 관용은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이다.
 - 14.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 15.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a. 그러한 생활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인 그리스도 자신이다.
 - b.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의 총체를 요약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관용’이다.

16.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롬 8:28, 마 10:29-30, 고후 4:16-18.
17.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살 때 근심은 우리 안에서 입지가 없다.
18.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물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19. 관용은 기도를 요구한다.
- F.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한 생활이다.
 1.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첫 번째 방면은 안정됨이다. 여기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불평이나 따짐이 없다.
 2.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른 이들과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없다.
- G. 관용에 대해 말한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한다.
 1.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 — 계 2:16, 3:11, 22:7, 12, 20.
 2.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
 3. 주님의 가까우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상황을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관심할 것이다.

II.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 빌 4:6 상.

- A. 가끔 우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며 염려에 빠진다.
- B.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킨다.
- C. 염려하는 대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빌 4:6 상)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빌 4:7).
- D. 마태복음 6 장 19 절부터 34 절에서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국 백성이 재물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지로는 염려라는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 마 6:34 상.
- E.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는 염려가 없다. 염려는 인간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 F. 우리 인간의 생명은 염려의 생명인 반면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의 생명이다.
- G. 하나님께는 염려라는 것이 없다. 반면에 우리 사람의 생명은 염려로 조성되어 있다.
- H. 염려는 우리의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 I. 염려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면 물질적인 것들을 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 J. 우리의 인간적인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